

제 5 장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가 나에게 관한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옵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시 42:1~3).

우리가 인생에서 알고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행복에 대하여 더 고귀한 전능자가 관심을 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종종 보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는 우주에 홀로 있다. 우리는 고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는 “무한함의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한 인생에 나에게 참으로 관심을 쏟으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자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고 의미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피조물의 거대한 무한함을 묘사할 때, 우리의 세상 전체를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피조물 안

에 있는 한 작은 점으로 언급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산들은 저절로 산봉우리가 솟은 것처럼 보입니다. 깊은 골짜기들은 저절로 함몰된 것입니다. 넓은 대양은 피와 살인과 폭력 그리고 전쟁의 저장소입니다. 지구의 강은 인류의 실의로부터 솟구쳐나오는 눈물의 흐름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혹성에서, 우리는 땅 위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떨어져서 거기서 떨어진 모든 다른 잎들과 함께 썩어 없어질 낙엽처럼 보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우리의 죽은 몸을 묻을 거대한 끝없는 공동묘지와 다름없습니다.

나는 책을 읽던 중에 태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대한 바다의 사진을 한 잡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진 위에는 “누가 나를 돌보는가”라는 표제가 붙어있고 그 아래에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인류의 소란한 뒷에 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던져지는 조그만 보잘 것 없는 점처럼 느껴진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의 목사 임기 중에 어느 때인가 한 장의사가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 상가에 갔을 때, 거기에는 죽은 사람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의사는 “내가 언제라도 질문을 받으면 그에게 정중하게 기독교식의 장례를 치루어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적어도 한 명 데려 오시지 않겠습니까?”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나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는 햄버거 집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주인에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 함께 가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시간을 나누어 준 그 사람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내가 묻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실까요? 그것이 주님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죽어버린 사람의 티끌을 그 땅의 나머지 티끌로부터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가 나를 알까요? 그가 내 이름을 알까

요?

대학 졸업생 한 명이 일본의 한 도시인 니꼬(Nikko)에 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신들을 사당에 모시는 곳입니다. 그 사당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하자 그는 산에 있는 거대한 폭포에 가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교육의 어려운 과업을 통과했으나 실패했다. 나는 니꼬에 왔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탐구를 계속했으나 거기서도 실패했다.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하여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

이 글은 그가 정신없이 소용돌이 치는 급류에 뛰어들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뒤 몇 년 동안 286명의 대학생들이 그를 뒤따랐고 마침내 정부는 터무니 없이 계속되는 자살을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마침내 결국 우리 모두는 그 깊고, 묘사할 바 없는 멸망과 갈급함 그리고 갈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젊음과 아름다움은 곧 사라집니다.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의 자살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아름다움이 지나가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던 사실에 기인합니다. 불가피한 것에 직면하기 보다는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달라스에 엄청난 실행력을 가지고 성공한 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의 돈으로도 건강과 수명을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최종적인 암흑에 직면하면서 그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마침내 우리 모두 그러한 갈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열려진 무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채 그의 옷을 꼭 붙잡고 있는 세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덤 밑으로 내려지는 그의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세 자녀들은 “엄마 어디 있어요?”라고 울면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가 될거란다!” 아이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원해요!” 아이들이 자러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옆의 다정한 이웃 집 어머니에게 가서 아이들을 재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와서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고, 입맞춤해 주고, 이불을 덮어 주면서 “내가 너의 엄마가 될거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 아이 모두 외쳤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원해요!” 그 아이들은 엄마를 원하며 울며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인생이 지나가고 돈으로 어떤 것도 살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의 불가피한 내일에 직면할 때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가 나를 알까요? 그가 나의 친구일까요? 그가 나를 돌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탄원이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것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희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달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달을 숭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별들을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과학적인 정신을 가진 어떤 이들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이런 법칙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제일

원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신화론적인 인물들을 보고 그들을 컴퓨터 산에서 경배했습니다. 역사상의 어떤 이들은 부처, 조로아스터, 또는 크리슈나의 체현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내적인 생명 안에서 나의 가장 깊은 정신 안에서 나는 그를 의식합니다. 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가 나의 가장 깊은 자아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내 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들어 오셨니?” 나의 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눈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들어 오셨니?” 나의 눈은 응답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빛과 색과 선들입니다.” 나는 내 손가락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스치고 지나가니?” 나의 손가락들이 응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져서 알 수 있는 실체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그가 나의 정신에 개입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가 나로 하여금 그를 찾도록 만드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나를 돌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래로 뻗쳐 나의 가장 깊숙한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가 나의 사랑, 찬미, 예배 그리고 생명의 관여를 추구하면서 나의 가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의 주님은 그의 사랑과 인자함과 자비로운 돌봄을 묘사하는 인간적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입니다. 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만연해 있는 비인격적인

우주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입니다. 그는 한 인격입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하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려는 노력은 그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라는 어떤 사상도 그로부터 제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화할 때 우리는 장미꽃을 따 버리고 가지만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화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태양을 치워버려 끝없이 깊은 한밤중의 어둠만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언급할 때 “나는”, “나를”, “나의 것”이란 말을 수 십 번 언급합니다. 그는 자신을 한 인간으로 계시합니다. 에녹이 우주의 법칙과 함께 걸었습니까? 에녹이 우주에 만연한 위대한 힘과 함께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갈은 브엘세바의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사막을 유랑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아이가 죽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를 샘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어 그가 사랑으로 예비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창 21:9~20). 하나님은 그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광야 뒷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오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이 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

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그 때 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수 천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결코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도나이”나 “엘 샤다이”와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발음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의 네 자음을 받아서 거기에다 “주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란 용어의 모음 부호를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아마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알아왔던 글자 그대로 가장 잘 발음한 것은 “야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곧 ‘나는 현재에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임을 말해 주어라”. 그러나 문법학자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곧 ‘나는 미래에 스스로 있을 자’(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말해 주어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그들이 너에게 ‘나의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안내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될 자이다’라고 말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여러 해 동안 여호와와는 그의 백성을 사랑해 왔고 인도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가운데, 이사야가 전능자의 무한성을 묘사하면서 서술한 다음의 구절보다 더 뚜렷이 의미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 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
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
에 비기겠느냐(사 40 : 15, 17, 18).

그리고 전능자의 무소부재함을 놀랍게 묘사하면서 그 예언자는
씀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 : 11).

주무시지 않는 세상의 위대한 전능한 창조주는 그의 양떼를 목
자같이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도자”, 즉 여러분의 안내자,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인생 여정 내내 여러분의 친구가 될 분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전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사
야를 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주
님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임박한 죽음 때문에 그의 집에 있어야 한
다는 예언을 받아 그에게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궁전으로 다시
보내어 그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
에 십 오년을 더하리라(사 38 : 5).

이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는 미래에 스스로 있을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역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와 사랑
도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와 끝모를 시대에까지 이르

게 됩니다.

그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중 하나가 되심

하나님은 내가 너희 순례의 동행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인간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나의 인생은 흥망과 행운과 섭리 모든 것을 떠맡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살고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 동료,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인생을 살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가 우리와 같이 한 인생을 사셨다는 위대하고도 거룩한 신비를 선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성육화에 대한 기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19~23).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 : 35).

서신들 가운데 위대한 교리적인 내용들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골 1 : 15).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 1 : 3).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 : 9).

이것이 바로 인간·육신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돌보실까요? 그는 어떤 종류의 인간일까요?

주 예수를 묘사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말합니다.“그래서 예수가 무리를 보았을 때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연민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예수”가 바로 그의 영원히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세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참새 한 마리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마 10 : 29). 그는 우리에게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닢에 관하여 가르치고 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 : 10)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같을까요? 무엇이 예수님과 같을까요? 민감하게 보살펴주시는 그를 보십시오. 사방에서 무리가 밀려들 때 예수님은 돌아서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는 “누가 나를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데 필요한 통로입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시며 설교하시고, 집집마다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나병환자를 깨끗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설교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훌륭한 주님이 돌보시는 역사의 아름다운 실례들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상실된 도시를 바라보며 울부짖으시고, 겐세마네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혼과 정신으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에 의하면 그는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약함을 느낌으로써 움직이는 연민이 많은 중재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굶주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상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낙담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만큼 번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히 4:15~16).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위대한 하나님, 야훼, 여호와이십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높이 들려지는 주 여호와를 보았을 때, 그는 예수를 보았다고 말합니다(요 15장). 여호와, “야훼”가 구약에서의 그의 이름이며, 우리의 불행에 의하여 마음이 감동되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연민으로 감동되고 우리의 약함을 느낌으로써 움직여지는 신약의 주 예수님입니다. 죄가 그안에 심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하나님은 용서없이 아니라 항상 연민을 가지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위대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야훼” 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자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에게 그 마음을 열어놓는 자들에게 그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땅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의 성령입니다. 내가 예수의 성령을 가질 때 나는 주 예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은 항상 찾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계셔서 우리의 첫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가 사악하고 벌을 주기 좋아하는 자인 듯이 그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습니다. 죄와 심판과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나라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큰 도시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십

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돌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시대에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찾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고 살피고 돌보시며 움직이십니다.

이러한 살핍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포괄적입니다. 기생 라합이 우리 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룯도 우리 주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유대인에게는 괴물같은 곳이었었습니다. 니느웨가 북부 이스라엘을 파괴했습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습니다. 동정심 없고 모질고 증오에 찬 앗시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악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귀족 그리고 앗시리아 백성들은 주님 앞에 삼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워버리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자비롭고, 친절하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인간 잡동사니, 이 땅의 인간 찌꺼기를 볼 때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이 추악하고 더럽고 불쾌한 피조물은 전기 의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교수형에 올라서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능지처참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이런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이지 않고 항상 포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으로 측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의 가슴은 가장 훌륭하고 친절합니

다!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붙는 용광로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우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은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갇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을까요? 왜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죄를 몰아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까요? 왜 그럴까요? 최악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좀 더 좋은 것을 염두에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과하는 불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은 그가 우리를 위해 선택한 선의 일부를 이룹니다.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훌륭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당한 수난에 의하여 복종을 배웠습니다. 그는 수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전지 전능한 인도자이며 구세주이며 동정적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통해 이끄시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선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짐을 진다면, 여러분이 좌절한다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자포자기한다면, 여러분이 상처를 입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한 어떤 좋은 일을 의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선을 위하여 모든 일에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불붙는 시련이 있을 때, 충만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며, 그 불꽃은 너를 해 입히지 못할 것

이다. 나는 오직 너의 찌꺼기를 다 태우고 너의 황금을 정련할 생각 뿐이다.

우리에게 매우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장차 나타날 아름다운 하늘의 삶을 위하여 우리를 채우려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목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인생과 피조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을 자이다. 언젠가 나는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될 것이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와 논쟁하거나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묶여져서 영원히 영원히 심연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는 추방될 것이고, 의로움은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듯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름답고 궁극적인 세상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상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시켰던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것들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현존 안에서, 서로 서로, 끝이 없는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그의 현존 앞에서 이리 저리 거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그가 나의 이름을 알까요? 그가 나를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는 사랑하고 돌보시고, 동정하고 이해하고 찾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며 용기를 주고, 우리 옆에서 걸으시며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 우리를 돌보

시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할 때에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여! 아멘!